

대학글쓰기 002분반

세무부동산학과

이정호

202210168

평: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마에 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음. 게다가 각주가 없어서 어디까지가 참고한 내용이고 필자의 생각인지가 불분명하며 이는 표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에세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생각과 이해가 필요하며, 참고자료는 오직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로도만 사용해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서론, 본론, 결론 구분은 좋음.

제목: 약리적 부작용이 없는데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 1. 서론

혹시 `의료용 대마초`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대마초는 `기분 좋게 해주는 약` 통칭 `마약`이다. 근데 우리나라사람들이 의료용 대마초라는 말을 들으면 의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법으로 대마를 완전 금지 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의료용 이라도 복용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였다. 최근에는 태국이 가정용 대마 재배를 허용해 화두가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또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50개국의 포함되어있다. 물론 미국이나 태국처럼 쉽게 접할 수 있지는 않다.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한국희귀, 필수약품 센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대마도 `마약`이다 보니깐 아직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나라보다 허용 안한 나라가 더 많고, 허가한 나라로 유명한 미국또한 허가한 주 보다 허가안한 주가 더 많다. 그 만큼 대마를 합법화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마는 다른 마약에 비해 해악성이 중급정도인데, 낮은 해악성이 합법화의 1순위가 아니다 라고 대마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식품의약국 FDA등 많은 많은 협회가 의료용 대마의 효능을 검증해 내고 있다. 그리고 대마자체의 해악성도 알코올과 담배가 대마초 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의료용을 위해서라도 대마를 합법화 하여야 한다.

## 2. 본론

### 2-1

의료용 대마는 현재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류가 풀지 못할 것 같던 뇌 질환쪽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뇌질환에 대표적인 예시로는 알츠

하이머, 치매 등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의료용마약 즉 대마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가 '마약'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선입견을 가져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뇌질환을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닐까? 치료할 수 있는 뇌질환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우리의 선입견을 바꿔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해야 한다.

## 2-2

대마 자체의 위험도 매우 낮은 수준인데 대마는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술과 담배보다 덜 위험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 담배의 1급 발암물질 타르 또한 피는 양 대비 대마가 더 적고, 오히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술이 더 위험하다. 무엇보다 대마는 담배처럼 꼭 연소해서 흡입할 필요도 없다. 다른 여러 가지 흡입법이 존재하는데 연고, 패치, 알약 등이 있다. 실제로 에디블이라 불리는 식품화된 대마초는 인기있는 주요 사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대마를 흡입 한 후 운전을 하면 위험하단 주장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감기약에는 잠을 오게 하는 약이 들어있다.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진통제, 해열제로도 쓰이고, 혈중 농도를 낮추어 심혈관질환이나 심장마비 예방약으로 쓰이는 아스피린에도 환각작용이 존재하고, 아스피린은 과다 복용시 과다 출혈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 대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약물보다 위험도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없는 수준에 하나의 '약'이다. 대마를 흡입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필요 없는 행동이다. 우리가 생각 하는 것 이상으로 대마는 안전하기 때문에

## 2-3

대마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가정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THC함량이 0.2%를 넘지않는 구강스프레이, 식품보조제, 스킨케어, 에너지 드링크부터 진통제, 스파 제품 등 10개 품목에 걸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태국의 끄룽시은행 경제연구소는 합법화 이전과 비교하면, 2025년 태국의 대마 시장이 두 배 이상 성장해 158억 바트, 우리 돈으로 5846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한다고 했다. 대마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음료, 식품, 의약품으로, 예상되는 세 품목의 시장 규모는 144억바트 우리 돈으로 5328억에 이른다. 태국 정부 또한 대마 합법화가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 대마가 비합법화된 나라의 경우는 대마의 거래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지에서 거래되는 돈을 양지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장점또한 있다. 물론 음지에서 거래 금액과 양지에서 거래 금액은 차이가 있다. 음지에서 거래 금액은 수사망을 피해야되는 위험부담에 따라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대마초가 합법화 된다면 합법적인 경로로 안전하고 값싸게 유통될 것이다. 합법화된 국가에선 대마초가 그램당 평균 11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14,000정도에 값으로 거래가 된다는데 확실히 음지에서

가격과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음지에서 거래되는 돈은 세율을 적용 할 수가 없어서 세금을 못 걷는다. 하지만 합법화가 된다면 대마의 담배나 술처럼 세율을 붙여서 세금을 걷게 한다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의료용 대마시장에 우리나라도 눈을 들이고 있는데, 최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용 대마 생산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환각 물질인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 등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산업화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정립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마 규제 자유 특구인 경북 안동시에서는 총괄주관 기간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과 유한건강생활, 동국제약 중앙연구소 등 35개의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산업용 헴프 재배,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2024년까지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의료용 대마 사업을 성공한다면 경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이다.

### 3. 결론

아직은 대마의 대한 여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 맞다. 오랜기간 동안 우리에게 `마약`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안좋은 이미지 였기 때문에, 하지만 UN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국내에서도 의료용대마에 관심이 쏠리고 국내에 대마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마가 위험성이 낮은 것은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졌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가 대마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발하게 의료용 대마에 투자를 하고 있다. 대마는 뇌 질환 치료제와 항암 치료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고통에 무게를 덜어주는 있는 약재이다. 대마는 우리의 생각이상으로 위험도도 낮고 중독, 부작용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약이다. 우리가 대마를 약으로 인식하고 의료용 대마사업을 촉진시켜 고통받는 환자들을 빨리 치료하고 의료용 대마 사업을 촉진시켜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쌓아야 된다.

### 참고문헌

이오성기자 [대마는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51>

최봉영기자 [의료용 대마, 치매 등 뇌 질환에 의학적 효과 입증]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

유민정기자 [불법마약류 대마초와 의료용 대마초?]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

양현덕 발행인 [대마와 알츠하이머 치매]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

박선재기자 [의료용 대마, 만성 통증 환자의 만족도는 높은데...]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59>

운영혜기자 [마약 목록서 '대마' 삭제한 UN...한국은 언제쯤?]

[https://www.e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613](https://www.e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613)

정민아기자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시장 선점 나선 기업들은?]

<http://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0>

배다현기자 ['의료용 대마' 합법화 될까? 글로벌 추세에 국내도 움직임]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D&idx=231508>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 [대마의 주성분인 TSC는 암을 막는다]

<https://www.newcastle.edu.au/newsroom/featured/tests-show-potential-for-medicinal-cannabis-to-kill-cancer-cells>

김상희기자 [태국,대마 재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이유... '의료용 대마 시장 공략']

[https://m.joseilbo.com/news/view\\_2020.htm?newsid=460255](https://m.joseilbo.com/news/view_2020.htm?newsid=4602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세안) [태국, 일반인 대마 재배도 합법화]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33738&mid=a3040000000&systemcode=03>

